

뉴질랜드의 임업 및 그 행정기구(完)

홍성옥 뉴질랜드 임업연구소
통계학 연구관 (농박)

이 글은 뉴질랜드 임업연구소 연구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洪性玉博士가 보내온 글이다. 洪 박사는 전남 康津産으로 서울대학교에서 林學科, 碩士, 博士과정을 모두 마치고 林木育種研究所 研究官, 뉴질랜드 정부 초청으로 임업 연구소에서 3년간 계약근무, 그후 귀국하여 全北大學校 教授를 역임하다가 다시 뉴질랜드 임업연구소에 정착, 동 연구소의 전산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洪 박사는 통계학과 전산분야의 碩學으로 認定받고 있을뿐만 아니라 뉴

질랜드에서는 외교관 이상으로 한국의 국위도 선양하고 있는 민간사절 역할을 함으로서 우리나라 외무부에서는 임업계 못지 않게 잘 알려져 있는 인사이다.

지난해에는 한국정부(과기처) 초청으로 임업 연구원에서 월여에 걸쳐 체류하면서 고국의 임업 전산시스템화에 많은 공헌을 하고 돌아간 바 있다.

비쁜 가운데 옥고를 보내준데에 대하여 감사사를 드린다— 편집자

〈전호에서 계속〉

뉴질랜드 산림행정 기구의 개편과 국유림 매각

뉴질랜드의 산림행정은 1896년 토지 및 측량국에 산림분야가 추가 설립되므로써 그 출범을 보게 되었다. 1910년대 초반에 자생림 자원의 감소에 따라 도입 속성수종의 인공조림이 강조되면서 산림행정의 중강이 요구되었으나 세계 제1차 대전으로 말미암아 지연되었다가 1920년 드디어 뉴질랜드 산림국(NZ Forest Service)이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이때부터 뉴질랜드 산림국은 식재림 조성과 자생림 경영관리의 임무를 맡게 되었다. 1947년에는 그 산림국 산하

에 임업연구소(Forest Research Institute)가 창립되어 Rotorua에 위치하였으며 조림, 이용 연구와 더불어 산림생산력 및 자생림의 생태연구 등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지난 70여년간 뉴질랜드의 산림국은 임업을 통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커다란 공헌을 하여 오늘날 이나라가 목재의 자급자족은 물론이요 임업수출국으로 대성하게 만들어 왔다. 그러나 상기한 바와 같은 국가 경제사정 때문에, 1987년 4월 정부시책에 따라 산림국은 세 분야, 즉 산림부(Ministry of Forestry), 산림공사(Forestry Corporation), 보존청(Department of Conservation)으로 쪼개지는 기구

개편을 당하게 되었다. 산림공사는 생산 임업 분야인 식재림을 담당하여 목재생산 및 판매에 의한 금원수입을 올리고 보존청은 비생산림으로 구성된 국립공원, 자생림, 야생동물 등의 경영관리를 담당하고, 산림국의 나머지 분야 즉 임업의 연구, 시책수립, 자문, 목재통관 등의 업무는 산림부가 맡도록 결정하였다. 이름은 산림부로 거창하게 되었으나 맡은 업무는 대폭 줄어 들었고 연구부문이 인원이거나 예산면에서 80%를 차지하는 기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또 정부는 사유화 정책과 외채상환의 목표에 따라 국유림중 식재림의 매각(토지소유권은 제외한 현존 임산물의 소유 및 별채권, 차후의 조림 및 경영권의 매각을 의미함)을 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국내의 임업회사는 물론이고 호주, 일본 등 해외의 구매자들이 식재림을 사들였으며 한국에서도 어느 큰 회사가 관심을 두고 조사를 해간 일이 있었으나 입찰에 성공을 하지 못하였는지 구입한 사실이 통계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다. 참고 삼아 뉴질랜드 식재림의 소유권이 매각 전후에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표 4에 나타내었다.

표 4. 국유림 매각후 뉴질랜드 식재림 소유권의 변화

	1889	1990
국유림	52%	29%
사유림	Fletcher Challenge 12	Fletcher Challenge 16
	Carter Holt Harvey 5	Carter Holt Harvey 27
	Elders Resources 13	Juken Nissho 4
		Earnslaw One 2
		Wenita 2
기 타	18	20
합 계	100	100

자료 : Evison(1991)

표에서 볼수 있는 바와 같이 국유림은 매각 전에 식재림의 약 절반 가량이었으나 매각 후에는 3분의 1로 줄어 들은 반면에 사유림은 정 반대로 3분의 1에서 식재림의 반을 차지 하게 되었다. 또 뉴질랜드의 회사인 Fletcher Challenge나 Carter Holt Harvey 이외에도 외국의 Juken Nissho(일본), Earnslaw One(말레이시아), Wenita(홍콩과 중공합작) 등 아시아 회사들이 뉴질랜드의 식재림을 사들였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 하다. 일본은 이미 뉴질랜드에 펄프 제지회사를 둔것은 오래된 일이고 근래에는 제재소를 세워 현지에서 제재를 해가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국유 식재림을 판매할 것으로 알고 있어 기회는 남아 있지만, 목재를 수입해야 하는 한국이 외국의 산림확보를 하는 것은 현명한 일로 간주되었는데 현재까지 어느 회사도 매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때에 유감스러운 일이다.

뉴질랜드 임업연구 기관의 개편

임업연구소가 이전에는 임업회사와 국민들에게 연구를 무료로 봉사하였으나 '사용자 지불'의 정부시책에 따라 임업연구소도 목재회사와의 계약연구와 기타 인적자원을 이용하여 연구비를 벌어들이기 시작하였다. 그 실례로서 1991년 연간 총 예산은 약 3천3백만달(NZ\$)이며 그중에 3분의 2가 정부지급이고 나머지 3분의 1은 고객으로부터 벌어들였다. 타 분야의 연구소에 비하여 예산벌기가 순조로이 진전되고 있다.

1990년 9월 선거에서 노동당이 참패하고 국민당 정부가 들어서자 새로운 과학, 기술정책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효율적인 운영, 연구소간의 중복적인 연구의 제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등을 목표로 뉴질랜드의

모든 연구소를 개편하여 1992년 7월1일부로 10개의 국립 연구소(Crown Research Institutes : CRI)로 만든다는 것이었다. 이 정책을 실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Ministry of Research, Science and Technology : MORST)와 국가 연구예산을 심사 배정하는 일을 담당하는 Foundation of Research, Science and Technology(FORST)가 형성되었다.

그에 따라 1926년에 설립되어 뉴질랜드 내 거의 모든 과학분야와 산업분야의 연구의 총본산이라 할 수 있는 DSIR(Department of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호주의 CSIRO에 해당함)가 여러개의 독립된 연구소로 분산 개편되고, 아울러 임업연구소도 다시 한번 기구개편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7월1일을 기하여 산림부에서 독립된 연구기관으로 새 출발을 하기 위하여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다.

새로 개편된 연구소들은 회사법에 의하여 독

립적으로 운영되며 계약연구를 통하여 연구자금을 확보해야 할 뿐 아니라 국가연구비 예산은 각 대학 및 사설 연구기관과 더불어 경쟁입찰 형식을 취하여 신청하고 FORST에서 이를 총괄 심사하여 통과되어야만 연구비 예산을 얻게 되어있다. 그 심사과정 중에 국가가 절실히 요구하는 연구제목을 채택할 수 있고 중복적 연구를 제지할 수 있게 되어 국가연구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고 가장 능력있는 연구팀에 예산배정을 할 수 있는 등의 많은 장점이 있다.

뉴질랜드 임업연구소의 구조개편을 보면, 종래의 조림보호부와 산림경영부를 통합하여 산림기술부(Forest Technology Division)를 만들었고 목재이용부에 속해 있던 PAPRO(펄프 제지연구기관 : 정부와 목재회사들이 반씩 투자하여 운영되었음)를 부로 승격시켰으며 LIRA (벌채회사들이 투자하여 운영하였음)와 산림경영부 소속 벌채수확 연구팀을 합하여 LIRO라 개칭하고 하나의 부로 만들었다. 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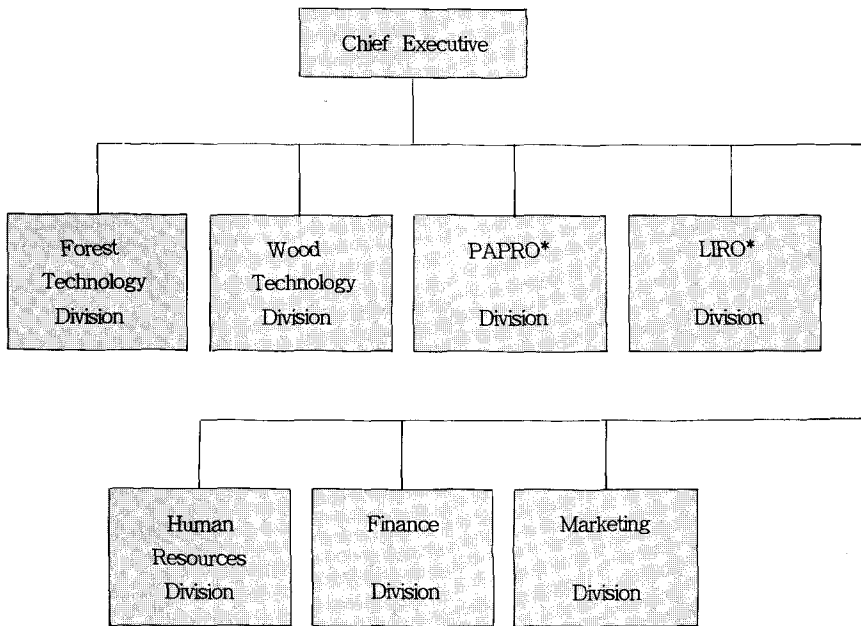


남섬의 Christchurch에 있는 본 연구소의 산림생태연구부는 1992년 7월 1일부로 분리되어 Land Environments CRI에 이전된다.

또 총무부(Support Services Division)는 인물관리부와 재정부로 나누어 지고 시판부가 새로 생겨났다. 그 결과 새로 개편되는 뉴질랜드 임업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4개의 연구부와 3개의 지원부를 갖게 될 예정이다. 연구소의 명

칭도 “National Institute of Forestry and Wood Products)라고 바뀔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 논의 중이므로 확실하지는 않다.

이상과 같이 뉴질랜드의 산림행정기관인 산림부와, 임업연구소는 국가 발전과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래의 모습을 찾아 볼수 없을 정도로 변모하고 있다.



(*PAPRO=Pulp and Paper Research Organisation
LIRO=Logging Industry Reserch Organisation)